



FAKE NEWS

2024 영국 사우스포트 폭동으로 본 허위조작정보의 무기화

최지현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 개발학 석사과정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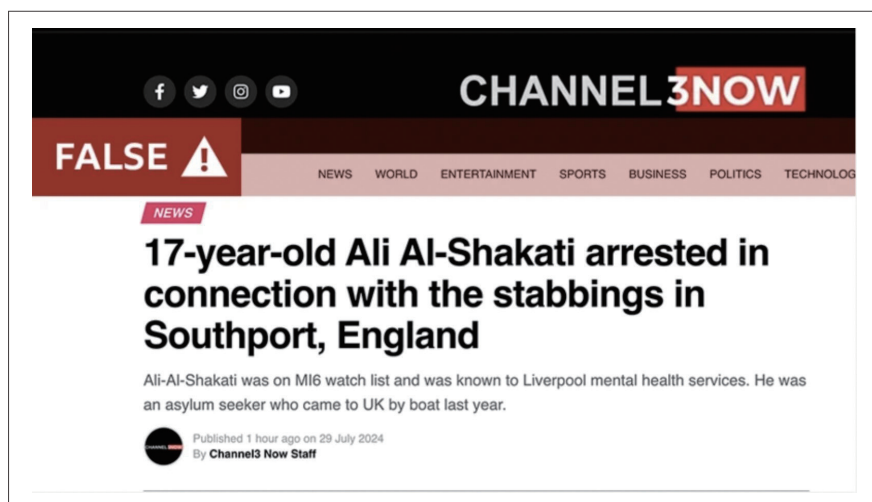
가정집은 문을 걸어 잠갔고, 상점들은 나무 판자로 출입구를 봉쇄했다. 런던 거리에 버스와 차량은 사라졌고, 무장한 사람들과 경찰들이 그 자리를 대신 가득 채웠다. 2024년 7월 31일, 영국 반이민 폭동의 시작이었다. 지난 10여 년 간 영국이 경험한 최악의 폭동(“The worst riots the UK has experienced in more than a decade”, Al Jazeera English, 2024)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번 영국 반이슬람, 반이민 폭동은 약 9일 동안 27개의 지역에서 발생했고, 총 400여 명이 체포되었다(Sinmaz, 2024). 놀랍게도 영국 전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시작은 한 허위조작정보에서 비롯되었다. 본 글에서는 작년 여름, 영국 사우스포트 홍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에서 확산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이 어떻게 현실에서의 사회적 분열과 폭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영국의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련 규제법을 함께 검토하며,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정보의 공백을 메운 허위조작정보

시간은 폭동 발생 이틀 전, 2024년 7월 29일로 돌아간다. 영국 사우스포트(Southport)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서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던 어린 아이들은 무단으로 들어온 17세 청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사고를 당하였다. 이 참사로 10세 미만 어린이 3명이 사망하고 8명의 어린이와 2명의 성인이 부상을 입었다(BBC, 2024a).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영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으며, 영국 국왕부터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수많은 인물이 애도를 표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온라인 상에서는 사건 범인의 신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영국 법률(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제49조)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기소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거나 형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경찰과 언론이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3).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이유로 미성년자인 범인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보의 공백은 허위조작정보로 빠르게 채워졌다.

시작은 X(옛 Twitter)나 틱톡(TikTok)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퍼진 범인 신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였다. 최초 유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중적 분노를 촉발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목하는 것은 채널3나우(Channel3 Now)의 게시물이었다.



〈사진 1〉 가해자의 신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채널3나우의 기사 화면. 이후 채널3나우는 허위조작정보 배포에 따른 사과문을 올렸으나 이미 전국적으로 퍼진 폭동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출처: Marianna Spring

채널3나우(Channel3 Now)는 용의자가 ‘알리 알 샤카티(Ali-Al-Shakati)’라는 이름의 무슬림, 망명 신청자이며, 배를 타고 작년에 영국으로 넘어와, 영국 정보기관 MI6의 감시 목록에 올라 있다고 거짓 주장했다. 이 근거 없는 주장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극단적인 반이민 및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사건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채널3나우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가 아닌, 언론사처럼 위장한 가짜뉴스 사이트임이 밝혀졌다. 카타르 노스웨스턴 대학교 미디어 애널리틱스 부교수 마크 오웬 존스(Marc Owen Jones, 2024)는 당시 유포된 수많은 게시물 가운데서도, 채널3나우의 게시물은 특히나 수천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고 허위조작정보가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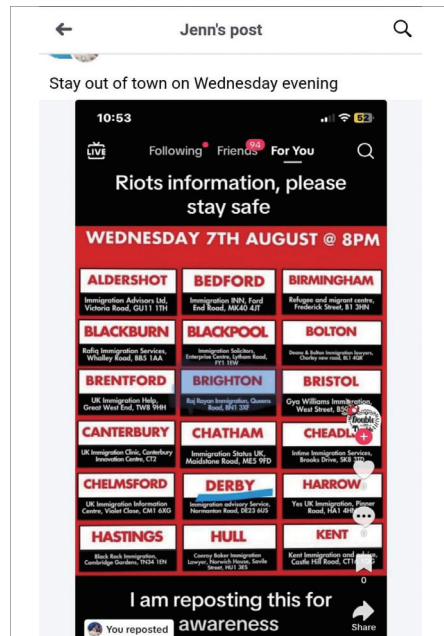
사우스포스트 공격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이 허위 이름, ‘알리 알 샤카티’는 18,000개 이상의 고유 계정에서 X에 서만 30,000건 이상의 멘션을 받았다(ISC, 2024). 필자 또한 이 당시 페이스북과 X에서 ‘알리 알 샤카티’와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 이 두 키워드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다. 영국 경찰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가 현재는 해체된 영국의 극우 단체 EDL(English Defence League) 지지자들로 하여금 다시 뭉쳐 폭동에 가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BBC, 2024b).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는 조직적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선동하였다. 온라인 내의 분노의 담론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다.

필자 또한 속해 있던 학교 단체 연락방에서 폭동 날짜들이 적힌 표들을 공유 받았다. 이날은 집으로 빨리 퇴근하거나 문단속을 잘하라는 메시지 또한 여러 개 받았다.



〈사진 2〉 허위조작정보가 퍼졌던 당시 가해자의 허위 이름인 Ali Al-Shakati가 소셜 미디어 X에서 영국 트렌드 검색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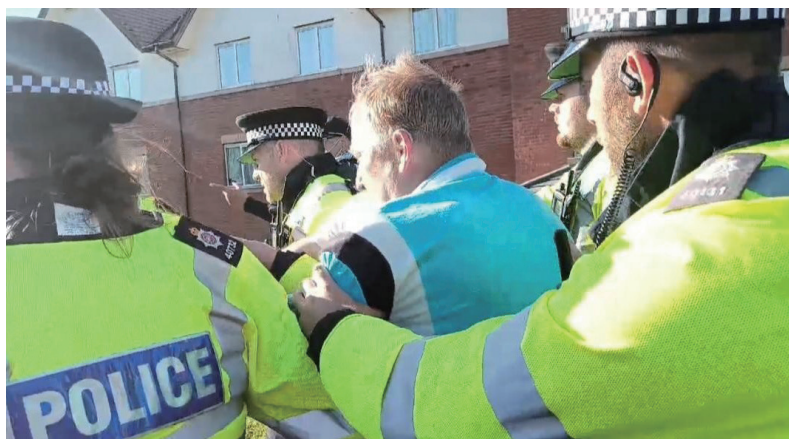
출처: X 스크린샷(ISC, 2024)



〈사진 3〉 당시 필자가 공유 받았던 폭동 정보 표들 중 하나. 각 도시별 폭동 예정 일시가 적혀있었다.

Ⅲ. 허위조작정보의 무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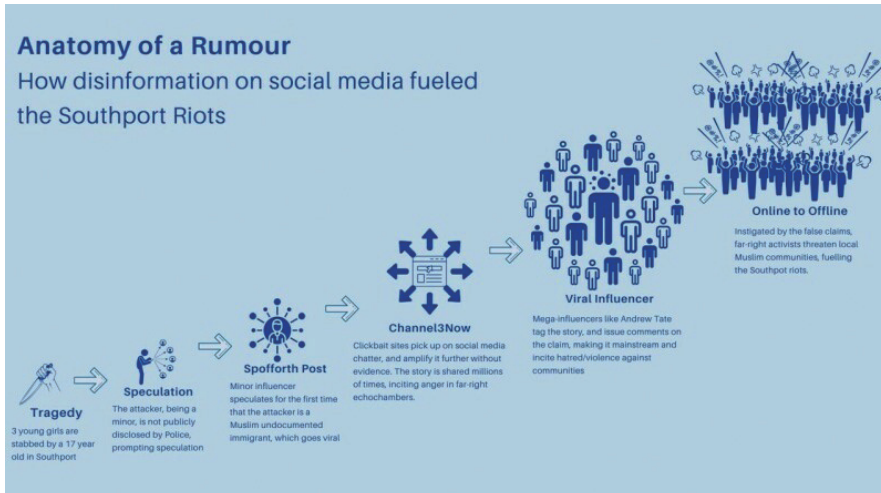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결국 영국 전역의 2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 공동체, 모스크, 난민 신청자들을 겨냥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런던 폭동 당일, 일이 있어 시내를 걸어야 했던 필자와 동료들 또한 최대한 폭동 장소를 피해 걸어도 고함과 몸싸움 소리로 단 번에 폭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런던에는 “이제 더는 용인할 수 없다”(“Enough is Enough”) 라는 슬로건으로 반이민주의 사람들이 뭉쳤고 이날만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당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진들은 하나같이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차가 불타오르며, 거리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장면들이었다. 그날, 직접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분노를 목격하며 필자와 동료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유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 충격적인 결과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4〉 Crawley 시위 현장에서 폭동 가담자들을 연행해가는 경찰들. 실제 현장 사진.
출처: 필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격해진 폭동은 전체 유색 인종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정보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분노를 표출하는 폭도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약탈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런던 거리에서는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운 뒤 운전자가 영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 상점과 식료품점 또한 무차별적인 약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도시 전역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함께 거주하던 하우스메이트들 역시 국적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폭동이 장기화되거나 더욱 격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필자가 체감하기에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정말 순식간에 발생하였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조장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말 믿을 수 없이 빨리 퍼졌고 이를 발미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되기 까지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진 5〉 사우스포트 폭동을 촉발한 루머의 경로를 보여주며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Usman Azeem

Azeem(2024)의 인포그래픽은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어떻게 현실의 폭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준다(익명의 17세 가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뉴스 홈페이지 형태로 공유되어 극우 단체의 폭동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렇게 온라인에서 조작된 허위 담론은 오프라인 폭력을 촉발하며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국가 폭동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경찰은 예외적인 판결로 범인 신원을 공개하였다. 실제로 악셀 루다쿠바나(Axel Rudakubana)는 17세로 카디프(Cardiff)에서 태어나고 자란 르완다 이민자의 아들로 무슬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났지만 이미 퍼진 폭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IV. 영국과 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과 제도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이번 폭동을 시위가 아닌 폭력배들의 난동(“This is not protest. It is organised, violent thuggery.”, Prime Minister, 2024) 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비난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Be in no doubt: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violence will

face the full force of the law.”, Prime Minister, 2024) 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선동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폭동 발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조던 팔러(Jordan Parlour)는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수용하는 호텔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촉구한 혐의로 징역 2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타일러 케이(Tyler Kay) 또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Sky News, 2024).

한편 파키스탄에서도 허위조작정보 전파의 중심에 있었던 채널3나우 운영자, 32세 파르한 아시프(Farhan Asif)를 체포했으며(Davies, 2024), 영국 체셔(Cheshire) 출신의 55세 여성, 버나뎃 스포포스(Bernadette Spofforth) 또한 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허위조작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Burnell, 2024). 그러나, 이후 두 사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면서, 허위조작정보 처벌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허위조작정보와 이를 공유하고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법적 대응이 얼마나 복잡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물론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담론이 사회적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 사회, 특히 이주자 비율이 16%를 넘는(The migration observatory, 2024) 영국에서는 이민 문제와 사회 통합, 그리고 폭력 범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가운데,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영국 총리는 폭동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약없이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영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허위조작정보를 비롯한 유해정보의 확산,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상의 범죄 등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이하 ‘OSA’)이다. OSA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종합적인 법률로,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의 집행은 영국 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담당하며, 2025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3월 현재 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영국 폭동 사태를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OSA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선, 오정보(Misinformation)의 경우, 제71조에 따라 ‘카테

고리 1 서비스(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는 자체 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허위조작정보 및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대형 플랫폼이 오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더 나아가, 제152조에 따르면, 오프콤(Ofcom)은 허위조작정보 및 오정보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규제 대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및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통신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미디어 활용 능력(Media Literacy) 증진 의무에 기반하여 허위조작정보 대응 전략을 오프콤(Ofcom)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CHAPTER 7 COMMITTEES, RESEARCH AND REPORTS

152 Advisory committee on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 (a) how providers of regulated services should deal with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on such services,
- (b) OFCOM's exercise of the power conferred by section 77 to require information about a matter listed in Part 1 or 2 of Schedule 8, so far as relating to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and
- (c) OFCOM's exercise of their functions under section 11 of the Communications Act (duties to promote media literacy) in relation to countering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on regulated services.

〈사진 6〉 영국 오프콤(Ofcom)의 허위조작정보 및 오정보 대응을 위한 자문위원회 관련 법 조항으로 규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방안, 정보 요구 권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UK Online Safety Act(2023) p.138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화된 규제가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번 폭동 사태를 통해 정책이 가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은 OSA를 비롯한 영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아직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으며,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폭동 이후,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OSA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며(Browne, 2024), 이를 인정한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OSA의 추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각부 장관인 닉 토마스-시몬스(Nick Thomas-Symonds) 역시 OSA가 아직 완전한 시행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개정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법 적용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위조작정보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영국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OSA에 앞서, 유럽연합(EU) 또한 기술 기업에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을 도입했다. DSA는 유럽 내에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규제법으로,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대상은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특히 유럽연합(EU) 내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s)과 초대형 검색 엔진(VLOSE,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유럽연합의 DSA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며, 영국의 OSA는 보다 강력한 콘텐츠 규제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두 법 모두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법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영국 오프콤(Ofcom)의 2024년 뉴스 소비 보고서에서는 영국 성인의 71%가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고, 절반 이상(52%)이 소셜 미디어를 뉴스 소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앨런 튜링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의 2024년 설문조사에 영국인 10명 중 9명(94%)이 소셜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듯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소비 공간을 넘어, 허위조작정보와 오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규제 또한 기술적 발전과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V. 한국은 안전한가

한국에서는 아직 허위조작정보가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어 전국적인 폭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2025년 1월 발생한 일명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버들 사이의 정보 왜곡과 선동 등이 폭력 사태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전유진, 2025).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2024년 영국 사우스포트 폭동과 같은 허위조작정보 기반의 대규모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민사적·형사적 규제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가짜뉴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하려는 법 제정 시도가 본격화되었으나 관련 규제 법안은 정권에 따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속에서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3개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적 규제는 사실상 전면 무산되었고 현

재까지도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이숙중, 2024).

이렇듯 영국과 한국의 온라인 및 언론 규제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모든 사례를 완벽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항상 뒤따른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영국 폭동 진압 당시 영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더 큰 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여기가 영국인가, 소련인가?”(“Is this Britain or Soviet Union?”) 라는 발언을 남겼다.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가, 음모론자들과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 같은 극우파 정치인들이 제기한 논란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영국 경찰이 ‘이중 기준’을 적용해, 좌파가 주도하는 시위보다 우파 시위를 더 강경하게 진압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키어 스타머 #TwoTierKeir”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영국 정부의 소셜 미디어 규제 시도를 표현의 자유 억압, 지나친 검열이라는 반응을 내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온라인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범죄이며,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각국의 법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공간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지만, 이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시에 법적 규제만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온라인 내에서 생성되고 공유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은 단순한 법적 대응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 규율이 필수적이다. 조작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이 2025년 OSA 협의 조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법적 규제와 개인의 정보 판별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보다 건강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VI. 시민 사회의 힘을 보여준 맞불 시위

법적 규제와 국가적 차원의 처벌과는 별개로 폭동 이후 영국 전역에서는 반인종차별 시위가 확산되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이민 폭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필자 또한 라이브로 시위를 보던 날에 맞불 시위대의 구호인 “Refugees are welcome

here(난민을 환영한다)”라는 외침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날이면 ‘오늘은 화염이나 폭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하며 안도했던 기억이 난다.



〈사진 7〉 브라이튼(Brighton)에 모인 반인종차별시위대. ‘난민을 환영한다. 극우를 멈춰라’ (‘Refugees welcome here. Stop the far-right’)라는 피켓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Zeeshan Tirmizi, Brighton&Hove News 기자

특히 브라이튼에서는 2,000여 명의 맞불시위대가 8명의 반이민 폭동 시위대를 둘러싸는 광경도 펼쳐졌다. 실제 사람들이 보여준 반인종차별 시위의 힘은 거대했던 영국 2024 폭동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Ⅶ. 나가며

이제 온라인 공간의 허위조작정보가 그저 글로만 존재하는 시대는 지났다. 온라인상에서 퍼진 의도된 거짓정보는 그 자체로 무기가 되어 사람들의 분노를 유도하고, 사회를 갈라놓으며,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영국 폭동 사태에서 드러났듯, 허위조작정보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온라인에서 촉발된 분노가 거리로 옮겨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폭동이 진압된 후,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평화롭던 동네 거리는 부서진 유리 조각과 불에 탄 자동차 잔해들로 뒤덮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갈등

과 분열은 더욱 깊어졌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을 단순한 인터넷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그리고 비판적인 정보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향후 진행될 영국 OSA의 협의 및 개정 과정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 법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디지털 환경의 건전성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Al Jazeera English,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heJ5ErOTFrg>
- Azeem, U. (2024). How riots in UK's Southport expose the web of disinformation and lack of accountability. <https://www.dawn.com/news/1853301>
- BBC, (2024a). All children injured in Southport attack out of hospital, <https://www.bbc.co.uk/news/articles/c24p34l9v51o>
- BBC (2024b). Why are there riots in the UK and where are they taking place? <https://www.bbc.co.uk/news/articles/ckg55we5n3xo>
- Browne, R. (2024). Britain considers tougher internet safety laws after riots, Musk comments —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cnn.com/2024/08/14/uk-considers-tougher-online-safety-act-after-uk-riots-musk-comments.html>
- Burnell, P. (2024). No charge over spreading of Southport misinformation, <https://www.bbc.co.uk/news/articles/crl8nwx6ynzo>
- Channel 4 News,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Z695faCoW8&t=852s>
- Cps.gov.uk, (2023). Children as suspects and defendant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hildren-suspects-and-defendants>
- Davies, C. (2024). Pakistan police arrest man over Southport attack disinformation, <https://www.bbc.co.uk/news/articles/c05je6yz0q1o>
- Emine Sinmaz (2024). Why are people rioting across England and how many are involve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article/2024/aug/05/why-people-rioting-across-england-how-many-involved>
- European Commission, (2022). The EU's Digital Services Act, [online] Available at: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digital-services-act_en [Accessed 4 Mar. 2025].
- ISD, (2024). From rumours to riots: How online misinformation fuelled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the Southport attack, https://www.isdglobal.org/digital_dispatches/from-rumours-to-riots-how-online-misinformation-fuelled-violence-in-the-aftermath-of-the-southport-attack/
- Legislation.gov.uk, (2023). Online Safety Act 202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contents>
- Migration Observatory, (2024). Migrants in the UK: An Overview – Migration Observatory, <https://migrationobservatory.ox.ac.uk/resources/briefings/migrants-in-the-uk-an-overview/>
- OFCOM (2024). News consumption in the UK: 2024 Research findings, [online] <https://www.ofcom.org.uk/siteassets/resources/documents/research-and-data/tv-radio-and-on-demand-research/tv-research/news/news-consumption-2024/news-consumption-in-the-uk-2024-report.pdf?v=379621>.
- Prime (2024). PM statement: 4 August 2024, [online]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4-august-2024>
- Sky News, (2024). First men jailed for riot-related social media posts, [online] <https://news.sky.com/story/jordan-parlour-facebook-user-jailed-for-riot-related-social-media-posts-13193894>
- Spring, M. (2024). The real story of the website accused of fuelling Southport riots, BBC News, <https://www.bbc.co.uk/news/articles/c5y38gjp4ygo>
- The Alan Turing Institute, (2024). More than 90% of UK population have encountered misinformation online, [online] <https://www.turing.ac.uk/news/more-90-uk-population-have-encountered-misinformation-online> [Accessed 4 Mar. 2025].
- 이숙종 (2024).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419&board=kor_workingpaper&keyword_option=&keyword=&more=
- 전유진 (2025). 경찰은 공안, 영장판사는 화교... 혐오감 담은 '가짜뉴스'가 법원 폭동 카웠다. [online]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013270001498>